

‘농도 전남’ 무색...전남 농가소득 11년째 전국 평균 밑돌아

지난해 4556만원 전국평균에 1.3% 적어...농업소득은 925만원 산지 가격 하락·고금리·고물가 영향...농업경영비는 1.4% 증가

작년 전남지역 농가들의 연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농가소득은 11년째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도(農都) 전남’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산지가격 하락과 고물가 속에 농업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소득은 4556만원으로, 전년(4722만원)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4615만원)보다 1.3%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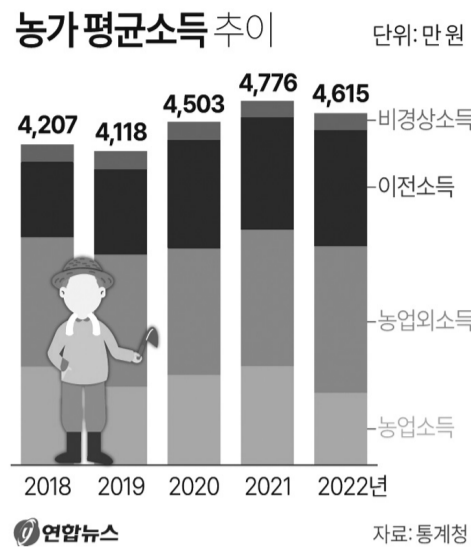
전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던 건

지난 2011년으로, 이후 2012년부터 11년째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5824만원)와 경기도(5273만원), 강원도(5037만원) 등 3곳은 전국 평균 이상이었으며, 전남을 포함한 충남(4548만원), 경북(4567만원), 전북(4291만원), 충북(4156만원), 경남(4108만원)은 평균 이하였다.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와 고물가, 교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에 농업소득이 역대 최대인 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농업소득은 전년 1285만원보다 360만원(28%) 감소한 925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소득은 농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경영비의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최고액이 경신되며 작년의 경우에도 1.5% 증가한 2604만원을 기록했다. 전남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2511만원)보다도 93만원 많았다.

전남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경영비용은 사료비로, 전년보다 19.1%(106만원) 증가한 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사료비는 611만원으로, 전년보다 17.8%(93만원)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료비(15.8% ↑)와 광열비(14.3%)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재료비는 전년보다 9.6%(106만원) 증가한 1204만원이었다.

지난해 전남 농가들의 조세 및 부담금 비용은 1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4.0%(2만원)이나 오른 것이 눈에 띄었다.

지역 농가소득을 분석해보면 농업소득이 925만

원으로 20.3%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27.2%)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농외소득은 농가소득의 36.1%를 차지하는 1648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외소득이 늘어난 건 겸업소득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남 겸업소득은 전년보다 12.4%(73만원) 증가한 663만원을 기록했다.

이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 지급 영향으로 평균 이전소득은 1662만원으로, 전년보다 0.8%(14만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남 농가부채는 2677만원으로, 전년보다 0.4%(-11만원) 감소했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는 3502만원으로, 전년보다 4.3%(-157만원)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늘어난 도(道) 지역은 강원도와 충북 등 2곳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17일 열린 서창농협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조합 관계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창농협 제공>

‘구제역 여파’ 1등급 한우 도매가 열흘새 9% ↑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등급 기준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kg당 1만 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9일 1만3170원과 비교해 9.3% 올랐다.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구제역 발생 하루 뒤인 11일 kg당 1만4000원대로 올랐고, 구제역 발생이 잇따랐던 16일에는 1만5000원을 넘기도 했다.

전 등급 한우 고기의 평균 도매가격을 보면 지난 9일 kg당 1만5003원에서 16일 1만6580원까지 올랐다가 19일 1만5162원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우 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구제역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일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구제역이 더 확산하며 방역 조치 강화와 축산물 공급량 부족 등에 따라 한우 고기 가격이 더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정주시와 증평군 소재 11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고, 농장에서 기르던 소와 염소 총 1571마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4일 kg당 5688원에서 11일 6380원으로 올랐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9일에는 5744원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변화와혁신 미래 도약 다짐’ 서창농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은 지난 17일 제이아 트웨딩컨벤션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는 초대조합장과 설립조합원, 우수 조합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서창농협은 1973년 방하동, 서호동, 신호동 3개의 이동조합이 합병, 설립됐으며 현재 본점과 9개의 지점을 통해 지역거점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에게 금융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농자재센터, 주유소 운영을 통해 영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고, 영농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산 홍삼,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인지능력 개선 효과 인정 aT, 홍삼 제품 수출 호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산 홍삼이 일본에서 인지능력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국내 인삼 수출업체와 일본 연구진과 협력해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홍삼 복용 효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홍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기능성에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인지기능(기억력) 개선 효과를 최종 인정받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공식 등록될 수 있었다.

aT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2023년 4월 기

준인삼류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한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삼음료, 홍삼조제품 등 먹기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간편 제품도 각광받고 있어, 이번 등록을 계기로 일본에서 홍삼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영 aT 수출식품사업사는 “식품의 기능성표기는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와 수출국 현지 제도등록이 선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로운데, 우리나라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이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에 성공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한국산 기능성식품이 현지에 등록돼 활발히 수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수부, 양식수산물 입식신고 지도·점검

재해보험 피해규모 산정 대비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입식(入殖) 신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식은 어린 물고기 등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군별, 품종별 입식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입식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입식 신고를 하려는 양식어업인들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하면 된다.

해수부는 주요 양식 품종 입식 시기에 맞춰 현장에서 입식 신고를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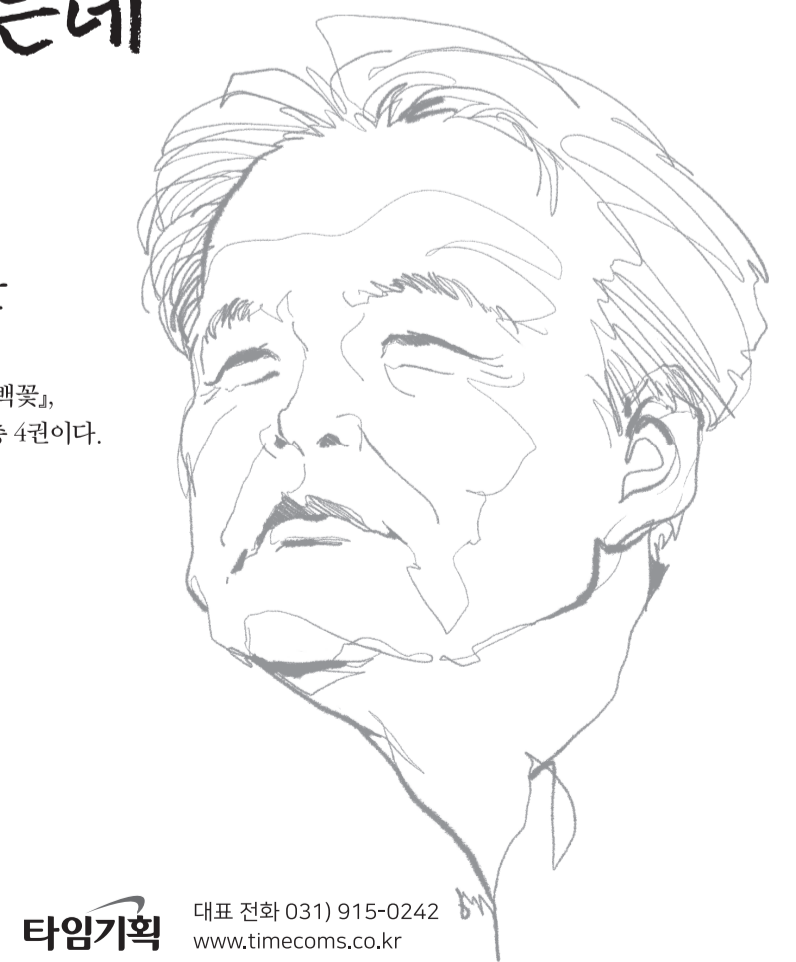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